

동양, PVA 미국수출 완전봉쇄...

미국 상무부, 반덤핑 조사 거부에 괴씸죄 적용 상계관세 38.74% 부과

미국 정부가 동양제철화학이 수출하고 있는 PVA(Poly Vinyl Alcohol)에 대해 38.74%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해 타격이 예상된다.

KOTRA에 따르면,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PVA(HS Code 390530000)에 최고 38.74%의 상계관세를 부과기로 최종 결정했다.

2003년 3월의 예비판정 당시의 덤핑마진 8.06%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, 피소기업인 동양제철화학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일반적으로 피소기업이 조사불참을 선언하면 정확한 덤핑마진 산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제조장에 기록된 마진을 중 최대 마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덤핑혐의 조사는 상무부 판정을 끝으로 미국 무역위원회(USITC)로 이관되며, 이관 45일 안에 산업피해와 관련된 최종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.

미국의 한국산 PVA 반덤핑 조사는 Celanese 등 미국 생산기업의 제소로 2002년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며, PVA를 수출하고 있는 다른 국내기업들에는 최고 32.08%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.

미국의 PVA 수입동향

(단위: 1000달러, %)

국 가	2001	2002	2003.1-5	증감률
일 본	9,964	13,776	5,346	29.0
타이완	12,321	9,186	5,776	46.3
중 국	8,974	7,241	792	▽74.5
영 국	5,474	5,618	2,588	23.8
한 국	2,858	2,767	1,076	3.1

PVA는 접착제, 종이가공제, 세라믹 및 연마제 등에 첨가되며, 한국은 2002년 미국에 276만7000달러, 2003년에는 5월 말까지 107만6000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8/07>